

‘대화로 해결’ 원칙 재확인 30일, ‘봉은사 토론회’ 개최

법안스님 등 단체 대표, 간담회서 밝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 불교시민사회단체 3자가 “대화를 통해 봉은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30일 오후2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영장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불교단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정용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등은 “극한적인 대결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제안을 총무원과 봉은사 양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토론회가 성사되었다”면서 “토론회를 대중공의의 전통을 살리고 집단지성을 모으는 창조적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총무원과 봉

은사, 불교단체에서 각 3인씩 총 9인이 참가하게 되며, 토론회 주요 논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이번 논란을 둘러싼 모든 사안들이 가감 없이 다루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총무원과 봉은사, 불교단체3자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각의 입장을 듣고 조율해가는 형식으로 오후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이 각각 대표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총무원과 봉은사 측의 보조 토론자는 현재 협의 중이며, 불교단체에서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과 윤남진 NGO 리서치 소장이 참가한다. 토론회 사회는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2면에 계속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국민 품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

총무원장 자승스님 ‘천안함 희생자’ 애도문 발표
‘극락왕생’ 기원...2함대 방문 ‘유가족 위로’ 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해군 초계함 천안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6일 발표한 애도문을 통해 “침몰 사고로 희생된 승조원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면서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에 희생된 천안함 승조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왔다”면서 “또한 고(故) 한주호 준위와 금양 98호 실종자들도 숭고한 동체대비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비록 이승에서의 몸은 떠났으나 이제 차가운 천

길 바다 속이 아니라 따뜻한 연화장 극락세계에서 편안하게 계시기를 기원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뢰 있는 조사와 사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희생자 유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애도문 발표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천안함 희생자들을 안치한 평택2함대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조문을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46명의 천안함 희생자 가운데 불자는 모두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스님)에서도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수 기자

“몸은 남보다 불편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맑고 깨끗”

총무원장 자승스님, 승가원 장애아동 위해 ‘자원봉사’

총무원장 스님이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의 어린이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오전10시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걷은도자체험 학교에서 진행된 ‘도야와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교실’에 참여한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어린이 2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과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을 비롯해 서울 제5기동대 의경 15명도 함께했다. 서울 제5기동대는 승가원장애아동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가영이도 스님에게 합장 인사를 한 후 품에 안겼다. 비록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지만, 스님과 ‘경찰 오빠’들의 도움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총무원장 스님은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도자기체험을 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내내 미소를 지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어린이들의 동심(童心)은 누구보다 맑고 깨끗하다”면서 가영이를 비롯한 장애아동들이 무사히 체험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

도자기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안병진 여주대 교수의 시범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가영이가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인 물레체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건강하길’ 글씨도 써주며 보조 활동 매달 1~2차례 소외이웃 찾아 자비행

해고고 있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의 어린이들은 이날 물레체험과 도자기 컵에 그림을 그렸으며,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어린이들이 무사히 체험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올해 12살인 (김)가영이의 단팍이 되어 체험 활동을 도왔다.

총무원장 스님은 가영이의 컵에 직접 ‘가영이 건강하길’이란 글씨를 써주며 앞으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길 기원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김)인화(10세),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은 소정(12세)이가 도자기 컵에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했다.

체험시간보다 30분전에 미리 도착한 총무원장 스님은 가영이를 비롯한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어린이

보면서 “예쁘다”는 탄성과 함께 끝까지 눈길을 놓치지 않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봉사활동에 앞서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원장 동욱스님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장애아동들이 맑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달라”고 격려했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원장 동욱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총무행정으로 바쁘실 텐데, 장애아동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다”면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불교복지가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동욱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주신 금일봉은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치료비와 재활치료비로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장애아동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취임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주신 금일봉은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치료비와 재활치료비로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을 방문했다. 역대 총무원장 스님이 연말연시나 부처님오신날 등 특별한 시기에 맞춰 소외된 이웃을 위로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자승스님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웃종교나 사회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여주=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기초부터 마련하고 각부서 유기적 협조 전략적 계획 필요”

‘모바일 포교’ 종책연찬회 개최

스마트폰의 확산을 계기로 모바일 포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단모바일 포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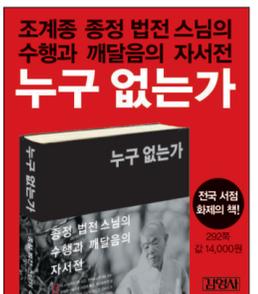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 디지털 옷을 입다’를 주제로 제37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종단 모바일 포교를 위한 기반과 지향’을 주제로 발표한 송주실 포교연구실 주임은 “불교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가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를 잡고 모바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 부서의 유기적인 결합과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 송주실 주임은 “방대한 내용을 콘텐츠화하기 위해 많이 쓰이고 활용될 콘텐츠와 꼭 만들고 제공해야 할 콘텐츠로 나눠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교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불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는 종단이 나서고, 대중적인 콘텐츠는 일반 개발자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개발자 시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준규 SK네트웍스 솔루션사업팀 대리가 ‘스마트폰 트렌드와 모바일리티 추세’를 주제로, 김종민 이미지홍스팅 대표는 ‘불교콘텐츠 오픈퍼블리싱 플랫폼’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경기도 군 단위 첫 여주군장애인복지관 개관

12면

‘33 관음성지를 찾아서’ @서울 조계사

15면

천안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애도문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사부대중은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사고로 희생된 승조원의 극락왕생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혈육을 잃은 슬픔을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해드리며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밤낮없이 구조 활동을 펼친 민(民)·관(官)·군(軍)의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사를 표합니다.

이번에 희생된 천안함 승조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열악한 여건에서도 몸을 던진 고(故)

한주호 준위와 금양 98호 선원들 또한 숭고한 동체대비의 뜻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이승에서의 몸은 떠났으나 이제 차가운 천 길 바닷속이 아니라 따뜻한 연화장 극락세계에서 편안하게 계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기원합니다. 신뢰있는 조사와 사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희생자 유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54(2010)년 4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